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의 선도(善道)라고 하는 성에 있는 비슬지라 거사를 찾아 나섰다. 그는 항상 전단좌 불탑(佛塔)에 공양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침내 선도성에 이르러 거사의 집을 찾아간 선재동자는 거사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음’이다. 나는 이렇게 여래가 이미 열반에 들었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지금 열반에 든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장차 열반에 들리라거나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방 모든 세계의 부처님 여래들이 필경에 열반에 드는 이가 없는 줄을 알고 있는데, 다만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보이는 것은 예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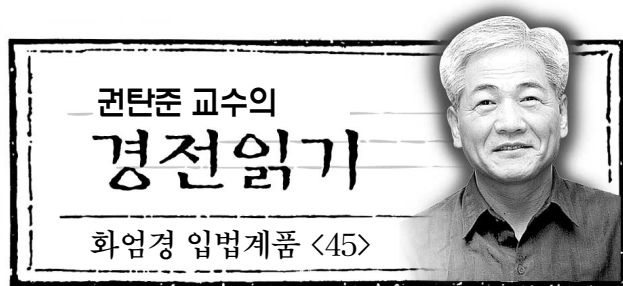
선남자여, 내가 전단좌 여래의 탑 문을 열 때에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불종무진(佛無盡)이다. 나는 생각마다 이 삼매에 들고,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들의 한량 없이 훌륭한 일을 한다.”

“이 삼매는 그 경계가 어떠한가?”

비슬지라 거사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삼매에 들고는 차례 차례 이 세계의 부처님들을 보았으니, 이른바 가섭불 · 구아함모니불 · 구루손불 · 시기불 · 비바시불 등이며 잠깐 동안에 백 부처님을 보고 천 부처님을 보고, 백천 부처님을 보고, 내지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을 차례로 다 본다.

또한 저 부처님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



비슬지라 거사의 법문

불탑 공양은 법신 섬기고 있음을 의미

“광대한 지혜로 사방의 일체법문 포섭”

고 선군을 삼고 훌륭한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고 묘한 행을 두고 바라밀다를 구족하며,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청정한 법의 지혜를 얻고 마군들을 항복받고 정등각을 이루어 국토가 청정하고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

나는 그 부처님들이 큰 광명을 놓으며 묘한 법문을 굴리며 신통으로 변화하는 갖가지 차별을 다 지니고 다 기억하고 살펴보고 분별하여 나타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이 얻는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비슬지라 거사가 설하고 있는 ‘보살들이 얻는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는 해탈’의 법문은 법신(法身)은 상주(常住)한다고 하는 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여 모신 곳이다. 불탑을 공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肉身)을 가졌던 역사상의 석존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부처님은 결코 열반에 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원불멸한 부처님의 법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본질은 결코 어떠한 형상을 지닌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영원불멸의 법이다. 부처님이란 바로 이 법을 깨달은 지혜인 것이다. 육신은 멸해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불멸의 가르침으로서 인간생존의 진정한 도(道)로써 살아있는 것이다.

거사가 불탑의 문을 열었을 때에 ‘부처님의 종성(種姓, 家系 또는 系譜)이 다함이 없다(佛無盡)고 하는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법신이 상주불멸임을 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불탑 속에는 무량하고 무변한 여러가지 훌륭한 미묘한 법이 빛나고 있다. 그러므로 거사는 순간마다 이 삼매에 들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훌륭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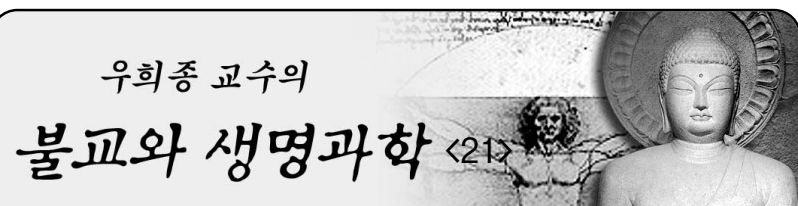
거사는 사방의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의 모습과 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선군을 삼고 묘한 행을 두고 마군들을 항복받고 정등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정한 불국토의 광경이나 중생을 교화하는 모양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거사는 일체의 부처님을 현재에서 보고, 그 부처님들이 설하는 일체의 법을 모두 듣고 기억하고 수지해서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부처님들이 큰 광명을 놓으며 묘한 법문을 굴리고, 갖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분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거사가 살고 있는 성의 명칭이 선도(善道)인 것은 거사가 항상 법신불을 공양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중생들을 잘 제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사의 이름이 ‘비슬지라(鉢)를 포섭한다는 의미’인 것은 그의 지혜가 광대해서 사방의 일체 법문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간의 지혜로써 세속에 머무르면서 자비를 행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사의 보살행은 항상 법신불을 공양하는 데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을 출현시킬 수 있는 화엄의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공감과 수용(II)

예전에 서해 교전으로 아들을 잃은 유족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다. 그 기사에는 유족이 소 리족어 오열하면서 역시 해군 예비역으로 퇴임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다’라고 단 한마디만 했다고 간략히 나와 있었고, 그 간단한 한마디에 나는 울고 말았다. ‘아들이었다’라는 말에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었’의 무게를 아는 자,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그가 사랑한 아들에 대하여 ‘어 진히 내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라고 하였다면 전혀 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그의 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에.

결국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유

결을 위한 절단과 식물의 생계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절단에 의한 고통의 절 절함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개체로서의 단절을 절감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공감한다고 생각해도 결코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으며, 내가 너의 눈물을 닦을 수 없으므로, 내가 나의 눈물을 닦을 수 없으므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그러한 고통의 허망함을 알아 그 고통을 놓으라고 할 수 밖에. 그러나 고통의 절절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절절함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소 귀에 경 읽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한 나무에서 뿌리와 가지는 한 몸이요,

고통 주관적이기에 공유할 수 없는 것

“마음공부로 개체의 단절 느껴보자”

신을 지닌 아들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식이라는 집착을 놓아 과거형으로 말 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인 것이다. 그 고통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은 분명 일어났다가 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에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허망하다는 것이 결코 절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어쩌면 그만큼 절절하기에 그 허망함을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절절함이 깊을수록 그 집착의 뿌리 깊음을 알 수 있기에.

그러나 그것은 알아차린 자의 몫일 뿐, 과연 소위 마음공부를 한다는 우리 마음 아픈 이들의 그 절절함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같이 손가락을 짚었다고 조족의 단

가지와 가지도 역시 한 나무의 한 몸이라. 그러나 뿌리를 자르면 가지도 죽지만, 가지를 잘라도 다른 가지는 태평하니 여기에 한 몸이면서 한 몸이 아닌 가지의 슬픔이 있다.

그렇기에 참된 마음공부의 출발점은 ‘나는 누구인가’이지만, 이것이 좋 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망한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는 세속의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보다는 ‘너는 누구인가’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너는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또한 우리는 말해야 한다. 네가 나를 아느냐고, 마음공부를 통해, 평등 심을 통해 타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공부는 개체에 대한 단절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세상과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찾는 선종의 기본 입장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하기는 이것은 선종에서 새롭게 개발한 입장도 아니고, 위낙에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해결책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

흔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꼽는 사성제(四聖諦)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상살이가 모두 근본적으로 괴로움인데(苦諦),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든 괴로운 일을 피하고 즐거움 일만 누리려고 발버둥 친다. 그 발버둥이 번뇌이다. 그런 헛된 발버둥을 어지럽게 쳐대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나’를 즐겁게, 편안하게, 영광되게 하고 싶어서 안달하기 때문이다(集諦). ‘나’를 볼 줄도 사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안고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사의 쳇바퀴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나’라는 것이 허상이며 즐거움, 편안함, 영광됨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면(滅諦) 그 쳇바퀴



선의 세계 18

견성성불-6

를 벗어나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滅諦).

그러니까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저기 높은 하늘 위 어디에 있는 조물주도 아니고, 살인, 강도, 도둑, 사기꾼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나 아까운 사

는 바로 나밖에 없다. 우선 말초적인 즐거움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괴로움임을 깨닫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실상은 무상하며 무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살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무지 깨닫는 철저한 반성이 중요

람 병들어 죽게 하여 애달프게 하는 세균 같은 것만도 아니고,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 이른바 천재지변도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이라는 얘기이다. 내가 세상의 진상, 즉 무아, 무상의 진상을 모르고 ‘나’ (我)의 ‘영속적인’ (常) 즐거움과 편안함과 영광됨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행태가 그대로 괴로움의 바다를 연출한다. 따라서 세상이 괴로움의 바다인 그 문제의 해결책

해결책을 찾는 데 개인의 마음가짐에 관심이 초점을 두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여기에서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이라 함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가 말한 이른바 축(軸)의 시대(axial age)에 중국, 인도와 그리스, 로마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상과 종교를 말한다. 축의 시대란 기원

전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즈음을 가리키는 데,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양의 석가모니와 공자, 노자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모두 이 시대에 일제히 태어났다. 현재까지 인류가 가진 제반 사상과 종교의 중요 가치관들은 모두 이들 축의 시대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적어도 사상과 종교에서는 그 뒤로 아직까지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종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상이다. 동서양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을 짜집서 이야기 했으니, ‘너 자신을 알라’는 서양 쪽의 경구도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神廟) 현판 기둥에 새겨진 구절이었는데,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잘못 알려졌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이 격언을 언급하였다. 그는 인간의 지혜는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무지(無知)를 아는 엄격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 격언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써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안내서 무료 배포)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에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2303 大邱支部 : (053) 641-2334
龜尾支部 : (054) 465-2642 慶南支部 : 016-274-3170
慶北支部 : (054) 553-5145

당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연세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화 식염입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약학(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강동원 교수) 역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비만·노화·선연연구센터 센터장
연세 재직중

1개월분 180,000원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한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능인선원에서 행자님을 모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십니다”

●도심 불교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영사, 동종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게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원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전술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행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스님』
- 대학원에 진학코자 하시는 분
- 승적증명서 입빙원서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임에서 임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흡수전유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건디가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화학자 권재우 용(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편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